

‘블랙’ 재미 보장하는 최강 씬스틸러들 뭉쳤다



OCN 새 오리지널 ‘블랙’이 재미를 보장하는 최강 씬스틸러 조합으로 강력한 몰입도를 선사한다. 오는 14일 밤 첫 방송되는 OCN 새 오리지널 ‘블랙’ (극본 최란, 연출 김홍선 제작 아이필미디어)에서 김원해, 정석용, 이철민, 히재호가 서운청 강력계 인지지원팀으로, 조재운과 이규복이 저승사자로 뭉쳤다. 각각 경찰청 내에서 일련의 사건을 수사하고, 죽음을 지키려는 ‘사자 블랙(송승헌)’과 함께 생을

김원해·정석용·이철민·조재운·이규복 등 이름만으로도 벌써 기대...강력한 몰입도 예고

다한 인간의 영혼을 수거할 이들은 일찌감치 쫘쫘한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는 후문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김원해가 연기할 나광견은 일명 미친개라는 별명답게 뛰어난 수사적 감각과 촉을 가진 실력과 형사지만, 분노 조절 장애와 열 받으면 남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고 정석용이 분한 봉만식은 인지지원반 반장으로 누구보다 팀원들을 아끼고 안타까워한다. 오소테 역을 맡은 이철민은 선배임에도 무궁의 몸을 빌린 블랙의 부탁을 죄다 들어주는 바람에 호구 신배로 낙점되며 박기남 역의 히재호는 수전증 때문에 총을 쏠지 못하지만 대신 뛰어난 컴퓨터 실력과 정보력으로 사무실에서 동료들을 서포트한다.

형사 한무강과 함께 하다가 그의 몸을 빌린 ‘사자 블랙’과 함께하게 되며 예상외로 웃음이 팽팡 터질 김원해, 정석용, 이철민, 히재호, 이미 현장에서 이들이 쉴 틈 없이 차진 대사를 주고받은 후, OK 사인이 나면 참았던 폭소가 터질 만큼 웃음 저격수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어느 작품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던 최고의 소화를 보여주는 김원해, 정석용, 이철민, 히재호의 활약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조재운과 이규복은 각각 저승사자계의 역사를 함께한 가장 오래된 연장 저승사자 No.007과 합합, 스웨에 미쳐있는 저승사자 No.416을 연기한다. 조재운은 오랜 저승사자 호우로 블랙의 조력자 역할을, 이규복은 블랙을 ‘블드님’이라는 애교 가득한 애칭으로 부르며 삼총사의 특별한 케미를 선보인다. 독특한 캐릭터 때문에 서로의 연기를 보며 웃을 것이라는 삼총사의 유쾌한 호흡은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은 “이름만 들어도 벌써 기

대되는 김원해, 정석용, 이철민, 히재호, 조재운, 이규복이 ‘블랙’으로 뭉쳤다. 형사 한무강의 몸을 빌린 블랙 송승헌과 함께 유쾌한 호흡을 펼칠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며 “또한, 김홍선 감독과 인연이 있는 이철민, 조재운, 이규복처럼 김홍선 감독의 전작 ‘보이스’에서 서운지방 경찰청 강력팀원으로 활약했던 배우들이 서운청 강력계 인지지원팀원으로 등장, 깨알 같은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고 귀띔했다.

한편 ‘블랙’은 죽음을 지키려는 ‘사자 블랙’과 죽음을 예측하는 ‘사(여)자’ 하림이 천계의 룬을 어기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생사에측 미스터리다.

‘신의 선물 14일’로 촘촘한 전개로 선술했던 최란 작가와 ‘보이스’로 장르물의 역사를 새롭게 쓴 김홍선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국내 방영 2시간 후 매주 일·월 밤 9시 45분 tvN 아시아를 통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다.

‘블랙’ 오는 14일 밤 10시 20분, OCN 첫 방송

‘하룻밤만 재워줘’ 촌극, 이렇게 호불호 갈린 예능이라니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9일 연속 방송된 KBS 2TV과 일릿 예능 ‘하룻밤만 재워줘’는 이상민과 김종민이 사전 섭외 없이 이탈리아로 넘어가 현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미션 수행이다. 시작 전부터 ‘하룻밤만 재워줘’는 논란에 휩싸였다. JTBC ‘한끼줍쇼’의 숙박 버전이라는 별칭이 국내를 넘어 외국에서 나라 망신을 시킨다는 지적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상민과 김종민은 로마에서 처음 본 외국인들에게 “여기 사냐”, “집은 사냐”, “우리 좀 재워 줄 수 있냐” 등을 물으며 숙박을 구했다.

방송에서 나온 외국인들 대부분 민폐로 시작해 감동으로 끝났다. 그래서일까, ‘하룻밤만 재워줘’를 향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극단적이다. 추석 연휴 최고의 파일럿 예능이었다는 효평에 국제적 민폐라는 그런 두 사람을 신기하고 재밌게 바라보다 편집됐는지는 몰라도 불쾌해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시선은 다행히 없었다. 하지만 이상민과 김종민은 12시간 구걸 끝에 첫 날 실패하고 말았다.

다음 날 도시를 옮겨본 두 사람은 박병 팬이라는 급박 소리를 만나 다행히 집에 초대됐다. 온 가족이 박병 지드레과의 열혈 팬인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상민과 김종민은 믿기지 않은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잡자리에 이탈리아 현지 방송까지 거하게 대접 받은 둘은 보답에 나섰다. 한국에서 가져온 지갑 슬리퍼, 핸드 마사지기, 손풍기, 불 들어오는 맥주잔 등을 선물했고 다음 날 아침 한국 음식을 요리해 한 상을 차렸다.

감동은 이후였다. 마르파와 쌍둥이 언니 줄리아는 칠삭둥이였고 이 때문에 마르파는 포레보다 작은 체구로 우물증에 걸렸고 줄리아는 생후 7개월째 소아마비를 앓았다. 이들 자매의 우울한 과거는 박병 덕에 밝혀졌다.

이날 방송에서 몸이 불편한 줄리아는 휠체어에 앉아 박병 노래에 맞춰 춤을 추었다. 또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박병의 ‘이프 유’를 열창하기도 했다.

결국 이상민은 감동에 겨워 눈물을 쏟기도 했다.

방송 직후 이 프로그램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역시나 민폐였다. 는 쓴소리와 감동이었다는 칭찬이 동시에 들었다. 시청자 게시판에도 비난과 효평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논란은 시청률과 비례했다. ‘하룻밤만 재워줘’는 1, 2부 시청률 5.9%와 10.1%(이하 님스코리아 전국기준)를 기록했다. 마르파의 집에 초대 받은 이야기를 담은 2부의 시청률이 2배 정도인 걸 보면 시청자들을 확실히 사로잡은 바다.

이렇게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린 예능은 오랜만이다.

황금연휴 극장가 “참패없는 역습”...10일간의 흥행 드라마



장장 10일간의 황금 연휴가 끝났다.

올해 영화계는 북풍이 대작을 집어 삼키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어떤 영화도 개봉 전까지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팽배하다. 역시 흥행, 반전 참패는 없었다. 관객들의 평가가 성적표로 고스란히 찍혔다.

추석시즌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간에 비해 영화의 수가 적어 결국 대작들이 독점하지 않았느냐는 예측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한 작품이 나눠먹기에 성공했다. 연휴 전 분위기는 ‘남한산성’과 ‘킹스맨: 골든 서클’의 양강구도가 우세했지만 시간이 지난 수록 역주행 신화 ‘범죄도시’, ‘장기 흥행 ‘이이 캔 스피크’

등 작은 영화들의 반란이 더 눈에 띄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같은 역습이다. 독주·윌앤쇼 대신 쌍쌍이 흥행·모두의 해피엔딩이라는 표현이 주를 이루면서 10일간의 흥행 드라마 한 편이 완성됐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합산상장 기준, 지난 달 30일부터 9일까지 개봉순으로 누적 관객수를 살펴보면 21일 개봉한 ‘이이 캔 스피크(김현석 감독)’는 176만301명, 27일 개봉한 ‘킹스맨: 골든 서클(메튜 본 감독)’은 34만919명 3일 당시 개봉한 ‘남한산성(황동현 감독)’은 32만7435명, ‘범죄도시(강윤성 감독)’ 218만786명을 동일했다. 애니메이션 장르에서는 ‘넛집’이 30만7586명을 끌어모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한 발 앞서 개봉한 ‘킹스맨: 골든 서클’이 가장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였다. 또 ‘남한산성’이 개봉 당일인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1위를 차지하고 누적관객수 30만 명을 돌파하면서 최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관객 수만으로 연휴 성적을 획일화하기는 어렵다.

일찌감치 손익분기점을 넘긴 ‘이이 캔 스피크’를 제외하고, 세 작품 중 가장 먼저 흥행의 맛을 보게 될 작품은 바로 ‘범죄도시’다. ‘범죄도시’ 손익분기점은 20만 명으로 연휴 내 돌파에 성공했다. ‘남한산성’ 손익분기점은 500만 명, ‘킹스맨: 골든 서클’의 1차 목표는 전작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누적기록 612만 명이다. 한참을 더 달려야 한다.

특히 ‘범죄도시’는 개봉 첫 날 ‘남한산성’과 ‘킹스맨: 골든 서클’에 밀려 3위로 출발했지만 6일 ‘킹스맨: 골든 서클’을 제치더니 8일에는 ‘남한산성’까지 넘어 전체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토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9일까지 이어졌고 ‘남한산성’과의 일일 관객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진정한 위너는 북풍 ‘범죄도시’였다.

기대를 모았던 ‘킹스맨: 골든 서클’은 평가면에서도 흥행면에서도 전작보다 못한 실망감을 안겼다. 100만 돌파까지 넘보던 ‘킹스맨: 골든 서클’이었지만 이제 전작을 돌파할 수 있을지조차 확실할 수 없게 됐다. 관객의 눈은 보다 더 냉정해졌다.

관람 등급도 더 이상 흥행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모양새다. 가족단위 관객이 극장을 많이 찾았다는 추석 연휴에도 청소년관람불가(청불) 등급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15세 관람가 ‘남한산성’과 청불 ‘킹스맨: 골든 서클’ ‘범죄도시’는 모두 비등한 성적을 받았다. 청불 헷타캡을 이긴 ‘오락’ 장르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 쥐띠 36년생 바깥출입 삼가. 48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 60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 72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 84년생 꿈을 접지마라.



▶ 호랑이띠 37년생 외출을 삼가라. 49년생 노력과 인덕이 비례한다. 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 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고양이띠 38년생 만사가 해결된다. 50년생 산행을 삼가라. 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74년생 이거다 싶으면 말고 나가라. 86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 토끼띠 39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 51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 63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 75년생 기다림을 알아라. 87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 용띠 40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맑아진다. 52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 6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76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88년생 호도하는 마음을 잃지마라.



▶ 뱀띠 41년생 까지가 집 주위를 맴돈다. 53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 65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 77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 89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



▶ 말띠 42년생 여유있게 행동. 54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 66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 78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 90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 양띠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9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 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원숭이띠 3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4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 5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6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 닭띠 33년생 출입을 삼가라. 4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57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 69년생 내 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 81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신하라.



▶ 돼지띠 34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 46년생 뜻밖의 재물운이 있다. 58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 70년생 낯말은 새가 듣고 방말을 쥐가 듣는다. 82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 소띠 35년생 미련을 버려라. 47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 59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 71년생 무리수는 금물이 다. 83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